

###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 0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 0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 마태복음 27장 3-10절 말씀

- 0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0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 0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 0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 0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 0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 09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 마태복음 27장 11-14절 말씀

-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 마태복음 27장 15-26절 말씀

### <1>

-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앞이더라

### <2>

-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 <3>

-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 <4>

-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